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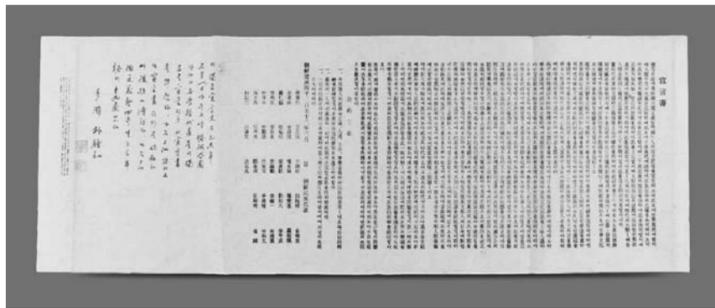
'3·1절 대한독립만세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함성'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7일부터 기획특별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승우)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 28일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3.1만세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기획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들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연관성,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에 미친 영향 등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의 관계를 조망하는 내용으로 기획하였다.

전시내용은 1부 '함성에서 만세로', 2부 '혁명군에서 민족지도자로', 3부 '보국에서 구국으로' 등으로 하였으며, 주요 전시 자료는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양상을 보여주는 '동학사', '석남역사' 등과 민족대표 33인이 자주와 독립을 천명한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의 사진과 악령, 재판기록을 보여주는 '민족대표 33인전', '삼일운동비사' 등 그리고 3.1운동으로 인해 순국한 독립운동가를 확인할 수 있는 '3.1운동시 피살자 명부'가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 28일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3.1만세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기획특별전을 연다. 사진은 독립선언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동학농민군의 함성이 전국적인 만세로, 동학농민혁명군이 민족대표 33인

로, 보국의 정신이 구국의 정신으로 면면히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와 민족운동의 뿌리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김태환 기자



남원 드림스타트, 아동 양육자 대상 요리교실 진행

남원시 드림스타트에서는 지난 23일 드림스타트 아동의 양육자 10명을 대상으로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요리교실은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것으로, 양육자의 영양교육을 통해 반찬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등을 터득, 가정에서 실제로 자녀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습득 위주로 구성했다.

요리교실에서는 요리 강사님과 간종기, 제육볶음, 멸치양념조림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음식조리를 위한 위생과 안전조리, 영양에 대한 기본 교육을 병행했다.

요리교실에 참여한 한 아버지는 "어렵게만 생각되었던 요리가 생각보다 쉬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종종 솜씨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노경희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관리 및 양육자들의 역할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 곳곳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잇따라

용안·황등·용동면 등서 소외계층에 김치 전달

익산시 용안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서은숙)는 이웃사랑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용안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이병두)에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부녀회가 직접 재배한 채소로 김치 500여 포기를 담가 경로당, 저소득세대 등에 전달, 그 의미를 더했다.

서은숙 부녀회장은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두 용안면장은 "훈훈한 이웃 사랑을 실천한 용안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황등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국영순)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최미경)에서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와 부녀회원 60여 명이 참여하여 첫째 날은 직접 다듬고 씻어서 절이고, 배추 속에 버무릴 각종 양념을 만들었으며, 둘째 날에는 미리 준비된 각종 양념을 정성스럽게 버무려 김치를 담가 관내 경로당을 비롯한 소외계층 지역주민에게 전달했다.

최미경 부녀회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김치를 버무리며 이웃 간의 온정을 나누고, 사랑의 나눔을 통해 다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춘희 황등면 총무계장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늘 소통하면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3일 용동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정향진)도 박리산농협 용동지점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해 용동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소외계층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농협으로 나와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 200포기를 담고, 먹음직스럽게 삶은 수육 등 맛있는 반찬들을 만들어 어렵게 지내고 있는 60여 가구에 전달했다.

정향진 부녀회장은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김장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가까이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곽동일 용동면장은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새벽부터 김장을 위해 나온 새마을부녀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돕는 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지평선중학교 학부모회, 사랑의 김장나눔 실천

2018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2일간) 김제 지평선중학교에서 학부모회 주관으로 학생과 학부모 100여명이 참여하여 추진되었다. 지평선중학교 학부모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서 담긴 김장 김치는 김제시장 애인중학복지관 재가 장애인 및 이용자에 100박스, 성덕면 경로당 26곳에 60박스가 전달되었다.

특히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발에서 배추(500포기), 무(100개), 대파 등을 직접 수확하였으며 배추 절임, 양념 재료 손질, 박스 포장 및 경로당에 김치를 전달하는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컸다.

또한 성덕면주민자치위원회 조혜영 회장과 만경읍 생활개선회 안종영 회장께서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하는 뜻으로 배추(500포기)를 무료로 후원하여 감동이 두배가 되었다.

김정경 지평선중학교장은 "사랑의 김장 나눔을 통해 자녀와 공감, 지역과 함께, 학부모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김장김치로 사랑을 전할 수 있어 지평선 가족 모두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산림조합, 사랑의 땀갈 나누기 행사 펼쳐

진안군과 진안군산림조합(조합장 전해석)은 지난 22일 용담면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어용 사랑의 땀갈 나누기 행사를 펼쳐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눴다.

진안군산림조합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된 진안군은 사랑의 땀갈 나누기 행사를 3년째 이어가고 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에 땀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산림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산불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예방과 자연경관 개선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올해에는 용담면에서 추천된 50여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에 100톤을 공급했다. 군 관계자는 "번거로운 겨울 추위를 앞두고 난방비를 걱정하는 이웃들에게 버려지는 잔목들이 훈훈한 사랑의 땀갈로 다시 태어나 큰 효용을 얻고 있다"며, "산림경영 성공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경영 활성화에도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외계층에 나눔 침대 전달

장수군 장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재홍·임재성)는 지난 22일 협의체 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8세대에 나눔 침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주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후원금 280여만원으로 진행됐으며 좌식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들이 침대를 통해 일상생활 불편을 줄이고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 마련을 위해 준비했다.

김재홍 공동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가 있어 힘들게 살아가는 가구에 작게나마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김제시보건소, 하반기 시민건강대학 수료식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지난 23일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수료생 49명과 관련 공무원 및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등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시민건강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하반기 시민건강대학은 '뇌 건강으로 웰빙 백세!'라는 주제로, 9월 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뇌 건강 체조, 주의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보드게임, 인지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기몰이를 하며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찬 어르신들의 건강한 모습에 가슴 벅처움을 느끼며, 시민건강대학에서 함께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삶에 활력을 느끼고 더 우아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시민건강대학 수료생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시민건강대학은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김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063-540-1306)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실 신덕면-경기 성남시 야탑1동 직거래장터 활발

임실 신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준영)는 지난 23일 자매결연지인 성남시 야탑 1동을 찾아 직거래 장터를 열고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실시했다.



야탑 1동 주민센터 광장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22개 품목을 전시판매 하였으며 주변인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올해 4번째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오프라인 판매장을 구축했으며, 특히 지난 15일부터 250박스(20Kg) 750만원 상당의 절임배추를 내달 4일까지 판매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항기 신덕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환영해주신 야탑1동 동민과 주민자치 위원에게 감사하다"며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도농상생 모델로 자리 잡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덕면과 야탑 1동은 지난 2014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상호 방문, 농산물 판매, 간담회 등을 갖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임실=진승영 기자

남원경찰 중앙지구대, 범죄 취약지역 집중 순찰 나서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중앙지구대(지구대장 이동권)는 관내 범죄취약지역인 공·폐가 및 청소년 탈선 우려지역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중앙지구대는 범죄자들이 숨어들 수 있는 장소, 사체유기 및 증거물은닉 가능 장소 등 범죄취약지역인 공·폐가 등을 일제점검 하였으며, 급년 수능을 마친 학생들의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 발생 가능지역 등을 면밀히 진단,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순찰하는 등 체계적·안정적 순찰을 위해 앞장섰다.

한편 이동권 중앙지구대장은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범죄자, 탈선청소년 등이 숨어들 수 있는 장소를 사전 파악해 스마트 공동체 치안을 현실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경찰 청문실, 직원들과 1:1 진솔 대화 '호응'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직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마음속 깊이 묻어둔 고민을 이끌어 내 함께 고민하고 위로해 줘 내부고객들로부터 진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직원들의 공사생활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고민사항이나 상담필요사항에 대해 사소한 고민거리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들어줌으로써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직원들은 "국민을 단속하는 경찰이 모범이 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비위예방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차에서도 다양한 방법과 계획을 세워 실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청문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의 사소한 일탈행위로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아름다운 동행 365일 테마 지정 비위예방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재 서장은 "직원들 개인적 애환이나 고민거리가 잘 해소될 때 결국 주민들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로 이어짐을 명심하고 동료간 관심과 따뜻한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